

일 주 문



해외 장학승에 장학금 전달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10월 6일 해외장학승으로 선발된 7명(일체·서형·현건·원경·다경·자용·허정)의 스님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꽃마을 효사랑 축제 개최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은 10월 11일 안성 연꽃마을에서 '제6회 효사랑 축제'를 개최했다. (031) 898-1486



제8회 올해의 진주시민상
진주 여래원 주지 동봉 스님은 10월 10일 진주시의회에서 '제8회 올해의 진주 시민상'을 수상했다.



이웃종교와 사랑의 바자회
서울 김상사 주지 덕조 스님은 '맑고 향기롭게'와 공동으로 10월 25일 덕수교회·성북동성당과 함께 '이웃사랑 바자회'를 개최한다.



여불려 자선음악회·연수교육
한국여성불교연합회 김묘주 회장은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공연장에서 '폭력없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02) 738-5586



강승규 산사음악회' 사진展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 강승규 회장은 10월 20~25일 서울 싸이드립 포토갤러리에서 '강승규 산사음악회' 사진전을 개최한다.



조계종 원우회 몽골청소년장학사업
조계종 원우회 장영욱 회장은 10월 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몽골 장학사업 'Share Dream' 복지사업 기금으로 300만원을 전달했다.

명원차문화대상 시상식·차문화제

윤형식·허원봉·최학림씨

한국다도종가(재)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10월 8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3회 명원차문화대상 시상식과 차 문화제를 거행했다. 문화공로상은 해남 다인회 윤형식 회장(사진 왼쪽), 문화예술상은 남도 대중문화한마당 허원봉 운영위원장(사진 가운데), 문화교육상은 명원다도예절문화원 최학림 목포지부장(사진 오른쪽)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연숙 기자



“약천사, 국제 포교 거점으로 키울 겁니다”

제주 약천사신임 주지 성원 스님

“단순한 관광지를 벗어나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불교를 수행하고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사찰로 거듭나. 제주도를 넘어 세계 속의 약천사로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0월 6일 오전 10시 조계종 제주 약천사는 주지 진산식을 갖고 부주지 성원 스님을 새 주지로 임명했다. 성원 스님은 “불사에 매진하면서도 일타대중사찰을 지극히 존경하고 극진히 모시는 은사 해인 스님의 모습은 <부모은중경> 법문보다 수십 수백 배 큰 감동이었다”며 “처음 약천사에 왔을 때 황망하기까지 했던 이곳에서 세계로 펼쳐 나아가길 우리 불교의 큰 희망을 보았다”며 약천사와의 첫 인연을 회상했다.

성원 스님은 폭넓은 지식과 적극적인 추진력을 갖춘 부주지로서 정평이 나왔다. 한국전통 교육기관인 해인사 승가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내·외전의 뛰어난 실력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풍부한 포교 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다.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성원 스님의 목표는 국제 포교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약천사다.

“약천사는 동양 최대의 3층 대적광전이 건립돼 있고 금당 내 목조비로자나불상, 후불목각탱화 등 뛰어난 건축미 덕분에 매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참배객이 찾고 있다”며 더 나아가 “약천사에 온 성지순례단은 물론, 제주를 찾아온 국내외 관광객들이 약천사에 머물며 기도하고 수행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템플스테이를 통한 포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성원 스님은 한라산 관음사의 제주대 불 건립 대작불사, 시민 선 센터, 제주도내 33 관음성지 조성불사 등에 참여해 제주 불교 발전의 견인차 역할도 할 예정이다. “늘 부처님 곁에 살면서 불법을 이야기하



며 살아가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약천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도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신임 주지 성원 스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원 기자

“많은 불자들이 ‘법화경’ 쉽게 접했으면...”

“법화경노래” 내놓은 불자가수 송춘희씨

“불자들이 <법화경>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앨범을 냈습니다.”

‘수덕사의 여승’으로 유명한 불자가수 송춘희(백련장학회 회장)씨가 ‘법화경노래’를 발매했다. 이번 앨범은 ▲민요 11곡 ▲찬불가 1곡 ▲동요 1곡을 법화경 28품의 가사말로 개사한 것으로, 진미령·김국환씨 등 많은 불자가수가 작업에 동참했다.

송춘희 회장은 “부처님의 가피와 도림 스님(법화경사 주지)의 격려 덕분에 음반 발매가 가능했다”며 “많은 불자들이 <법화경>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아끼지 않았다.

20년이 넘는 불자가수 생활동안 가톨릭에서 불교로 개종한 그의 내력은 특이하다.

송 회장은 “교회 수석장로인 할아버지를 포함한 8남매 중 5명이 목사 일을 하는 등 목실한 기독교 집안으로, 열아홉 살까지 가톨릭 신자였다. 1966년 발표한 ‘수덕사의 여승’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해, 불법의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회상한다.

그는 캐나다에서 공연을 하던 중 한 스님과의 인연을 통해 ‘백련화’라는 법명을 받고, 1983년 찬불가 취임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또한 찬불가를 통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던 중에도 불교에 대해 깊이 공부해야겠다



는 생각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입학·수료했다. 소년소녀가장과 불우학생 등을 위해 백련장학회를 17년 동안 이끌어 오고 있는 송춘희 회장, 매주 일요일마다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찬불가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마음은 여전히 ‘청년 보살’이다.

(02)928-1331

김진성 기자

“북한 주민 얼굴서 부처님 미소 발견해”

평화통일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서유상씨

“현재의 모습을 서로가 인정하고 도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면 좋겠습니다.”

10월 7일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사장 명진)가 개최한 평화통일사진공모전에서 ‘양각도호텔 불사원의 미소’로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은 서유상씨는 “잡자리와 식사를 걱정해주던 봉사원 아저씨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냉면처럼 시원한 호텔 아저씨의 미소가 지금도 선하다”고 말했다.

북자라고 밝힌 서씨는 “첫 방북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여행에 제한이 많아 갑갑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봉사원의 선한 미소에서 자유와 동포애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후 경직된 줄로만 알았던 북한 주민들 모습에서 부처님의 미소를 발견했다”고 회상했다. 이번 최우수상 ‘양각도호텔봉사원의 미소’는 <민족21> 기자인 서씨가 2005년 7월 말 ‘북한맛집기행’ 취재일정 중



촬영한 것이다. 이번 사진전에서 서씨의 작품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공모전에 당선된 서유상씨의 작품을 비롯한 사진 14점은 9일까지 한국불교역사기념관 1층에 전시됐다. 노덕현·이상언 기자

조계종 포교원 하나원 새터민 천도재 봉행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0월 3일 안성 칠정사에서 제2회 하나원 새터민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번 새터민 천도재에는 해·원생 80여명이 참석했으며, 포교원은 향후 하나원 법당불사 및 새터민 포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차예절 사범·전시회 대전서 열려



육전의 도예가 이숙인씨와 차예절 전문사범 강경미씨는 대전 대청문화회관에서 30일~10월 7일 차예절사범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복 육전221부대 장병들이 참석해 다도를 배웠다. 해설 충청지사장

학림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봉안법회



광주 학림사(주지 원명)는 10월 8일 비미국왕이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 3과 친견 및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법회는 학림사대중전 낙성 1주년 기념을 겸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태종 관문사 창건 10주년 기념법회



천태종 관문사(주지 정상)는 10월 5일 창건 1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상, 김사원장 춘광, 고승덕 의원, 문화부 권경삼 총무실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종섭·김진성 기자

군포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 생일잔치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대림)은 대한생명 사랑모아봉사단 인양지원단과 함께 군포 장애아동 생일잔치를 개최했다. 한화생명 56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생일 잔치에는 장애아동 15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제6회 대원상(大圓賞) 시상 안내

◆시상 요강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이신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하여 불교 포교에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 제6회 대원상을 시상합니다. 이는 모든 불자에게 귀감이 되어 불법 흥포와 진흥의 바탕이 되도록 하고, 또한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 포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으로 신행과 수행에 정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상 부문

- 대 상 : 승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재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단체 부문 1곳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 불교진흥프로그램아이디어공모상 : 약간 명 - 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특별상 : 약간 명(곳) - 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수상자 선정

- ① 대상 승가 부문은 '대원상심사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시상합니다.
② 대상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특별상 부문은 추천 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수상자를 구분 선정합니다.
③ 불교진흥프로그램아이디어공모상은 젊은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우기 위한 취지로 불교 진흥을 소재로 한 영상물 및 오디오(비디오, 사진,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오디오 등의 아이디어를 모집, 시상합니다. 아이디어가 선정된 경우 추후 본격 제작 및 활용을 위하여 별도 본 원 지원사업 시행 절차를 통해 지원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15세 ~ 39세 이내 출품 가능).
④ 특별상은 접수한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중에서 불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불자, 단체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수상 후보 추천 접수

- ① 개인은 불교 포교 활동 경력 5년 이상인 불자이어야 하고,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인 곳으로 활동 회원이 30명 이상인 곳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각 부문 수상자는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활동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주로 검토, 선정합니다.
③ 7,80년대 이후 (약 한세대 이전) 작고한 분이라도 한국불교 현대화에 공헌했던 분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④ 후보자들이 일정 자격수준 혹은 불교 포교 활동 공적이 본 상의 취지와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각 양식은 본 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원상 수상 후보 추천서.
- 대원상 불교진흥프로그램아이디어 공모의 경우는 공모 신청서(1), (2)와 작품화 예상도 및 추진계획서만 제출.

◆서류 접수 및 문의처

- ① 접수 기간 : 2008년 10월 10일(금) ~ 11월 20일(목).
② 접수 및 문의처 : 본 원 사무국 (홈페이지 : www.kbpf.org)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전화 : (02) 719-1855, 2606
③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당일 소인 유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민병천

Advertisement for 'Samgaksan Dosunsa' (삼각산도선사)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temple building. Text includes '호국참회 관음기도 도량', '주지 선묵 혜자',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oul Special City Gangbuk-gu Uidong 264beonji.